

VOX: 다름의 답음

December, 2017 | LDY



다름의 답음

갤러리 페로탱 홍콩에서 열리는 김홍석 개인전 <Subsidiary Construction>에서는 기울어진 그리고 쌍곡선의 형태를 띤 구조에 대한 연구 Study on Slanted and Hyperbolic Constitution이라는 긴 제목의 연작을 선보인다. 빛이 반사되는 포장재로 둘러싸여 조심스레 반짝이는, 위태롭게 쌓아 올린 골판지 상자들의 형태. 조각이란 전통적 매체를 감상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바라보자. 작품은 포장 그 자체지만 당선은 포장 속의 작품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면서 동시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. 폐품 더미, 끈끈한 것들이 뜯겨 나간 흔적, 극사실적으로 만들어놓은 가짜 상자들은 사실과 거짓 그 의미의 경계를 무디게 만든다. 연작의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김홍석은 미국의 대표적 조각가 데이비드 스미스 David Smith와 로버트 인디애나 Robert Indiana의 작업을 절묘하게 불러온다. 뛰어난 수 없는 간극과 차이, 그것에 동화되고 스스로 수용하기까지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였을까. 영원한 타자이자 주체가 된 작가의 풍부한 우화를 들어보자.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, LDY